

## 한국과 EU의 농촌개발의 비교

임형백 · 조중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 A Comparative Study on Rural Development of Korea and EU

Lim, Hyung-Baek · Cho, Joong-Koo\*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rural development of Korea and EU. According to its traits the periods of rural development of Korea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According to its memberships and traits the periods of rural development of EU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EU in agricultural situation and rural development. EU introduced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1980s and adopt strong policy to support that in 1990s. And EU made a effort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cently Korea not only maintain agricultural expansionism but also pay attention to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But rural development of Korea still in the stage of physical planning and agricultural expansionism. So it leaves much room for improvement to rural development of Korea in rural development regulation, unifying theme, detail planning, integration among polici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tc.

**Key words** : CAP, EU, Multifunctionality, Rural development, Rural planning

## I. 서론

한국에서 농촌개발은 1958년에 시행된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마을을 기본단위로 하여 마을의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마을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마을의 농업생산확대, 소득증대, 생활개선, 의식개혁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최양부와 정기환, 1984).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식량자급과 농촌의 근대화는 한국이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한국은 물적자원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그 당시에는 기능을 갖춘 도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초창기부터 자연스럽게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농촌개발에 중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70년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이의 실천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려 했다. 197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 운동은 생활태도 혁신과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낙후된 농촌의 근대화를 취지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한국의 독특한 농촌개발로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은 생산성 증대, 소득증대, 생활개선, 의식개혁에 큰 비중을 둔 농촌개발이 행하여져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심화되고, 마을중심의 농촌개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었다. 특히 한국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 1986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자 이를 배경으로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었다. 1988년에 개최된 한·미통상협상에서 1988년에서 1991년까지 3개년간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하면서, 243개 농산물수입이 개방되었다. 이후 농업의 경

쟁력 상실과 농산물 수입개방속에서 한국은 기존의 농촌개발에서 탈피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는 새로운 농촌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촌개발을 제1기(1958-1969), 제2기(1970-1980), 제3기(1981-1989), 제4기(1990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또 EU의 농촌개발을 가입국의 수와 이해관계에 따른 수정으로 인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특징을 기준으로 제1기(1958-1972), 제2기(1973-1980), 제3기(1981-1985), 제4기(1986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한국과 EU의 농촌개발을 비교하였다. 이는 한국은 농업상황과 농촌개발의 전개과정이 EU와 유사한 면이 많고, 특히 한국의 1990년 이후의 농촌개발과 농업정책은 많은 것을 EU에서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추구하려고 하는 농촌개발의 방향은 EU의 공동농업정책에 198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두드러진 현상이기 때문이다.

표 1. 한국 농촌개발의 시기별 구분과 특징

시기	특징
제1기 (1958-1969)	지역계획의 도입과 제도화 -1958년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개발사업 시작 -농지개혁 -농업증산 5개년 계획(1953-1957)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1962년 건설부 신설: 지역개발 및 계획의 도입과 제도화
제2기 (1970-1980)	전국적 국토계획제도 도입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도·군 단위를 대상으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970년 새마을 운동 시작 -도·농간 소득격차 -1975년 쌀 자급 달성
제3기 (1981-1989)	지역계획적 농촌계획의 태동과 형성 -농촌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방법론적 전환 제기 -지방정부생활권 개발론, 종합적 농촌개발론, 농촌중심권 개발론 제시 -성장거점전략에 근거한 단핵구조의 국토공간형성에서 탈피 -1985년 농촌지역종합개발의 군 지역 종합개발계획으로 정부정책화
제4기 (1990년 이후)	농촌계획의 제도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규정 -정주권개발의 제도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오지개발의 제도화: 오지개발촉진법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조

\* 주: 시기 구분은 윤원근(1999)의 구분을 사용하였음  
자료: 윤원근, 1999 : 11-18을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

## II. 한국의 농촌개발과 EU의 농촌개발의 비교

이 장에서는 한국의 농촌개발을 개발계획의 특징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제1기(1958-1969)는 지역개발계획이 도입·제도화 된 시기이다. 제2기(1970-1980)는 전국적으로 국토계획제도가 도입된 시기이다. 제3기(1981-1989)는 지역계획적 농촌계획이 태동한 시기이다. 제4기(1990년 이후)는 농촌계획이 제도화된 시기이다.

EU의 농촌개발은 가입국에 따른 제도변천을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구분하였다. 제1기(1958-1972)는 초기 6개국으로 구성된 시기로 가격지지와 농업구조근대화가 특징을 이룬다. 제2기(1973-1980)은 9개국으로 구성된 시기로,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을 동일시한 시기이다. 제3기(1981-1985)는 10개국으로 구성된 시기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4기(1986

표 2. 유럽의 농촌개발의 시기별 구분과 특징

시기	특징
제1기 (1958-1972)	초기 6개국으로 구성된 시기 -프랑스, 서독, 네델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농산물 수입 -가격지지, 농업구조 근대화
제2기 (1973-1980)	9개국으로 구성된 시기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가입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을 동일시 -1970년대 식량 자급 달성 -지역격차문제 본격 도입 -본격적인 농촌개발정책은 아직 도입하지 않음
제3기 (1981-1985)	10개국으로 구성된 시기 -그리스 가입 -19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농산물 자급률 100% 상회 -지역격차에 대한 정책적 지지 미흡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강조
제4기 (1986년 이후)	12개국으로 구성된 시기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책적 지원수단 강화 -종합적 농촌개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1) 유럽석탄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1967년 조약에 의해 EU로 탄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EU은 이때부터 늘어나는 가입국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공동농업정책에 있어서 가입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협의와 수정을 통하여 EU이 공동된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도 논문의 구성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년 이후)는 12개국으로 구성된 시기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책적 지원수단이 강화되고, 종합적 농촌 개발과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 1. 한국의 제1기(1958-1969년)와 EU의 제1기(1958-1972)의 비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많은 신생국의 출현과 더불어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당시 선진국 학자들에게 후진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미국의 1948-1952년 Marshall Plan(The European Recovery Program)에 의해 전후 유럽이 단기간에 부흥됨으로서, 후진국에 대해서도 자본만 지원하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둘째는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때 후진국들도 선진국이 밟았던 단계를 그대로 따르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정창영, 2000, Todaro, 2000).

이러한 이유로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까지 경제성장이론에서도 성장단계론(The Linear-Stages Theory of Development)이 주류를 이루었고,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타파와 근대적 농촌개발을 위하여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부관계기관, 주립농업시험장 등에서 농촌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가, 한국에도 급속히 전파되었다. Rogers(1962)의 연구는 이러한 기술의 전파과정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은 해방이후 주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식량생산이 농촌개발의 과제였던 시기였다. 광복 이후부터 6·25 전란 회복기까지 미국의 식량원조로 식량위기를 극복했고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도입하여 국내 식량가격을 안정시켰다(김병택, 2002). 식량증산을 위하여 농지개혁이 단행되었고 농업증산 5개년 계획(1953-1957)이 수립되었다(윤원근, 1999).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개간, 간척을 농정의 주요한 사업으로 시행하였고, 1975년에는 쌀 자급을 달성하였다.

1962년 건설부가 신설된 이후 지역개발 및 계획이 도입되고 제도화되었으며(최상철, 2004),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1958년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촌개발이 시작된 시기이다(박서호, 2004).

농촌개발은 마을을 기본단위로 하여 마을의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마을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마을의 농업생산확대, 소득증대, 생활개선, 의식개혁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최양부와 정기환, 1984). Long(1977)

은 농촌개발은 국가 및 지역발전이론 및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면서, 농촌지도(agricultural extension), 지역사회개발과 같은 개량접근과 오지개혁, 재정착 계획과 같은 개혁접근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의 경우 농촌개발은 개혁접근보다는 개량접근적 성격을 취하여 왔다.

또 농촌지도의 경우 영어로 Cooperative Extension Work라하며, extension을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Cambridge 대학교와 Oxford 대학교가 정규학생이 아닌 일반시민을 상대로 공개강좌를 개설하였는데 이러한 교육을 University Extension Education이라 명칭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미국으로 전파되어 미국 주립대학교에서도 실시되었는데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한데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최민호, 1998). 이후 미국의 농촌지도가 한국에도 도입되어, 농업기술 전파를 통한 농촌개발에 이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중심의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발되는 도시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제도는 지속적으로 변천하고 발전되어 왔으나, 농촌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계획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윤원근, 200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농업생산에 대한 지원은 EU 농촌개발에서도 핵심적 전략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EU는 농산물 수입국이었다. 따라서 기계화, 과학적 영농기법의 도입, 농장의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도 다른 산업에 못지 않은 소득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처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농업확장주의(aricultural expansionism)라고 한다. 따라서 EU는 농업확장주의에 집착하면서 최저가격보장을 통한 가격지지와 농업구조근대화에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EU에서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의 지원에 의해 1962년부터 시작된 공동농업정책<sup>2)</sup>이, 지금까지도 가격지지 및 농업구조 근대화를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중앙설계주의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1988년 개혁까지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중 에서 가격지지정책 및 수출보조를 위한 지원분야(보증

2) 공동농업정책은 EU의 정책 중에서도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EU가 ①프랑스, 서독, 네델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초기 6개국으로 구성된 시기(1958-1972), ②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가입으로 9개국으로 구성된 시기(1973-1980), ③그리스의 가입으로 10개국으로 구성된 시기(1981-1985), ④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으로 12개국으로 구성된 시기(1986-)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부분)이 전체 재정의 약 95%를 차지하였고,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지도부문)은 불과 5%정도에 불과하였다(박경, 2003).

**2. 한국의 제2기(1970-1980년)와 EU의 제2기(1973-1980)의 비교**

한국에는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국토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1972년에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1972-1981)이 만들어지고,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 및 군 단위를 대상으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를 기초로 실제의 지역계획이 수립되지는 못하였다(윤원근, 1994).

또 1970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이의 실천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려 했다. 197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 운동은 생활태도 혁신과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낙후된 농촌의 근대화를 취지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한국의 독특한 농촌개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한편으로는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과 1970년을 비교하여 나타낸 면 표 3과 같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도·농간 소득격차 또는 농가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농정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김병택, 2002).

이 시기의 새마을 운동도 1958-1969년의 농촌개발과는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즉 1960년대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도시와 농촌간의 상대적 발전격차를 시정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경기침체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촌인력을 농촌부문에 고용시켜 실업의 압력을 둔화시키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윤원근, 1999).

EU는 공동농업정책 수립된 이후 농산물 최대 수입국이던 EU국가들의 식량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대에 자급을 달성하였다. 1974년 파리회의(Paris Summit)에서 지역격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이 결과 1975년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은 공업쇠퇴지역과 낙후지역의 개발에 사용되

었다. 또 1970년대 이후에 필요에 따라 공동농업정책에 환경보조금,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했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다.

오늘날 EU의 농촌정책은 구조기금(EU Structural Fund)정책과 통합된 형태로 되어있고 그 정책수단과 추진체제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각국별로 운영실태가 매우 다르다(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1997). 현재의 EU의 농촌개발정책의 구조는 크게 보면 공동농업정책의 농촌개발수단과 EU의 구조기금하의 지역정책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박경, 2003).

**3. 한국의 제3기(1981-1989년)와 EU의 제3기(1981-1986)의 비교**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수입 개방 압력이 가중되었다. 특히 한국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 1986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자 이를 배경으로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었다. 1988년에 개최된 한·미통상협상에서 1988년에서 1991년까지 3개년간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하면서, 243개 농산물수입이 개방되었다.

이 시기에 들어와 지역계획적 농촌계획이 태동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은 성장거점3(growth center)전략에 근거한 단핵구조의 국토공간형성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Myrdal(1957)은 중심도시를 성장거점으로 보면서 과급효과보다는 역류효과의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핵심지역과 주변지역간의 성장격차는 더욱 심화되리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Hirschman(1958)은 성장격차를 줄이고 지역간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의 성장격차는 완화된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Williamson(1965)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의 단계에 따라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Richardson(1976)은 과급효과와 역류효과는 시·공간상에서 매우 비대칭적인 유형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파

표 3. 농가 및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단위: 천원, %)

구분	호당 소득			1인당 소득		
	농가(A)	도시(B)	A/B	농가(C)	도시(D)	C/D
1965	112	113	99.1	18	19.5	92.3
1970	256	292	87.7	44	53.3	82.6

\* 주: 명목소득 자료임, 김병택, 2002 : 40.

3) 고전적 공간경제학은 두 개의 조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W. Christaller와 A. Lösch가 대표하는 독일학파의 중심지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발전의 공간적 분극(polarization) 현상을 논의한 F. Perroux와 그의 후학에 의한 프랑스-벨기에 학파의 성장극 이론이다. 이후 성장극 이론이 지리적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경제발전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성이 새로운 개념의 구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개념이 지리적 공간상의 성장적 입지, 곧 도시를 의미하는 성장거점이다.

급효과가 역류효과보다 커져서 순과급효과(net spillover effect)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았으며,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은 순과급효과를 가져오는 데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과급효과와 역류효과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한국에서 농촌개발에 대한 방법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도 1981년이다(최양부, 1987).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는 지역생활권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수정계획에서는 종래의 성장거점전략에 근거한 단핵구조의 국토공간형성에서 탈피하여 지역성을 강조하고 지방의 정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주생활권 개념이 도입되었다(윤원근, 1999, 이성우 등, 2003). 지금까지의 마을중심의 개발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대안적 개발방식으로서 지방정주생활권 개발론, 종합적 농촌개발론(integrated rural development), 농촌중심권 개발론이 제시되었다(최양부와 이정환, 1987). 이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소득격차를 넘어 국토의 불균형개발의 단계에 이르렀고 과잉도시화 등 사회적 추가비용이 요구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농촌개발은 농업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는 농촌개발방식으로 바뀌었다. 1985년에는 농촌 지역종합개발이 군 지역 종합개발계획으로 정부정책화되었다.

표 4. 과급효과와 역류효과

Myrdal, G(1957)	과급효과(spread effects)	역류효과(backwash effects)
Hirschman, A. O(1958)	누적효과(trickling down effects)	분극효과(polarizing effects)
의미	핵심부지역의 발달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축적된 부가 주변부지역으로 확산·발전되어 나가는 현상	한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그 주변지역에서는 인구와 자본, 기업체 등이 빠져나가 자원이 중심부로 모여드는 현상
발생하는 상황	① 주변지역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경우 ② 주변지역에 천연자원이 풍부한 경우 ③ 정부의 지역정책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과급효과가 확산되는 경우	① 핵심지역과 주변지역 간에 재화나 서비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주변지역에서 핵심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경우 ③ 핵심지역과 주변지역 간의 자본의 이동

그러나 농촌개발방식의 기본적인 접근은 농공단지의 개발이나 농어촌 정주권 개발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적 개발방식이었다. 즉 실천적 계획의 근간은 내부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접근방식은 농촌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 및 주민참여가 배제된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적 개발의 시각에서 나온 것이었다(이성우 등, 2003).

EU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농산물의 지급률이 100%를 상회하게 되었음에도(사공 용, 2002), 농업확장주의의 흐름은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의 과잉공급과 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추진해왔던 농업생산증대 일변도의 농업개발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케인즈 그룹<sup>4)</sup>(Cairns Group)은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와 각 국가들이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는 각종 대농민 지원정책의 축소·철폐를 주장하였고, EU은 가격지거나 농산물 수출 보조 같은 강력한 시장개입정책을 더 이상 실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농산물보조금 지급은 케인즈 그룹과 EU의 이해가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EU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단기내에 중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특히 EU 최대의 농업국가이면서도 소농이 농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제 농촌은 농산물의 공급 지로서 농민만의 폐쇄적 공간으로 남을 수 없었다. 즉 농촌이 신자유주의적 교역질서 속에서 새로운 자원의 발굴을 통하여 보전하여야 할 공통의 공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금과 같이 시장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을 피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임형백, 2002).

이런 이유로 1980년대부터 EU에서도 농촌지역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공동농업정책은 주로 시장개입정책이 중심이었고,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을 동일시하여 본격적인 농촌개발정책은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의 변화, UR 농업협상과 농산물시장의 개방, 공동농업정책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시장개입주의에 대한 대내·외 비판을 배경으로 농업정책보다 넓은 시야에서 농촌정책을 도입

4) 주요농산물수출국을 가리킨다. 1986년 첫 회의를 개최한 후주의 지명을 따라 명명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 볼리비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피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하지 않고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EU는 1980년대 후반 농촌의 다원적 기능<sup>5)</sup>(multifunctional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1988년 이전까지 EU는 유럽통합에 따른 시장의 힘이 지역간 회원국들 간의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지역정책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988년 EU의 지역정책은 대폭 개혁되었다. 개혁의 계기는 EU 내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 없이는 단일시장이 추진되더라도 EU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강현수 등, 2003). EU이 농촌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88년에 공포된 『Future of Rural Society』라는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문서이다. 이 문서는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농촌지역의 균형(balance)의 유지·회복을 위해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구조기금의 개혁을 통한 농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셋째, 농촌개발의 수법으로서 상향식(bottom-up), 정책연계, 지역에서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박경,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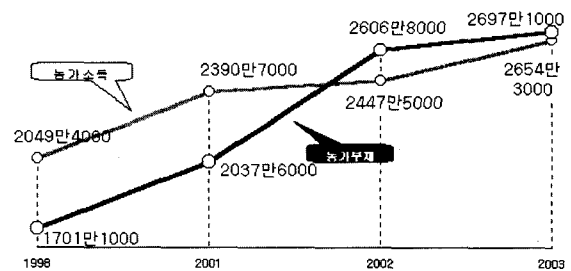
#### 4. 한국의 제4기(1990년 이후)와 EU의 제4기(1986년 이후)의 비교

이 시기는 농촌계획이 제도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계획제도가 제도화되었다.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는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 계획은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적인 수단을 담은 산업계획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림부, 1990)과 오지개발촉진법(행정자치부, 1988)에 의해 면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이 제도화되었다(윤원근, 1999).

5) 비교역적 관심사항(Non Trade Concerns; NTCs)과 다원적 기능의 차이점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원칙적으로 농업부문에 한정되지 않는 비교역적 내용 전체를 망라하는 개념인데 비해, 다원적 기능은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다원적 기능이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WTO 무역협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비교역적 관심사항이고, 농업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OECD 농업위원회와 FAO 등에서 개발한 개념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다(오세익 등, 2001).

그러나 UR협상으로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문민정부'가 1993년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줄속으로 시행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오히려 농촌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한국은 1989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농업구조개선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농업구조개선정책은 농산물시장개방을 전제로 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그 방법은 농지유동화를 통한 개별경영의 규모확대에 두었다. 즉 농가유형별로 선별적인 정책(영세농의 탈농유도와 전업적 상층농의 규모확대)을 실시하여, 농지제도의 개선에 의하여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소유의 상한선을 확대하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농업생산기발투자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핵심과제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조정(agricultural structure adjustment)으로, 상품생산을 지향하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영농규모를 확대시키고 기술혁신으로 생산력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10년 동안 82조원<sup>6)</sup>의 막대한 예산이 농촌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원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처음부터 충분한 사전고려가 없이 소득보전과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에 집중된 반면, 사회적 계획(social planning)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림부는 UR협상 이후 10년 동안 농업 분야에 82조원을 지원했지만 농촌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 기간 중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89.1%에서 73.0%로 줄었고, 오히려 농가부채는 같은 기간 중 가구당 568만원에서 1,990만원으로 늘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농가별 평균 부채 및 연간 소득 변화 추이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 자료: 통계청, 동아일보, 2004.04.23 재인용

그림 1. 농가별 평균 부채 및 연간 소득 변화 추이

6)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농업 투·융자 규모는 약 82조원이었고, 농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과 지방비 지원을 빼면 순수 국고지원은 62조원 수준이었다(농림부 정학수(丁鶴秀) 농업정책국장, 동아일보, 2003.11.12; 최세균(崔世均)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동아일보, 2004.02.17)

또 현재 농산물수입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농산물가격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고 있고, 탈농 노동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서구의 농업구조개선정책과 다르다.

한편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여 생산주의적 농업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정책으로 농정의 방향 전환을 도모했다. '문민정부'의 농어촌발전위원회 보고서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1994년 6월)나, '국민의 정부'의 『농업·농촌기본법』(1992년 2월 제정)은 모두 새로운 농정의 방향으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박경, 2003).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우리나라 농정에서 얼마나 관철되었는가는 의문이다. 여전히 1990년대에도 농정의 중심은 농업생산력 증대에 두어져왔다(박진도, 2002). 또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다원적 기능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우리나라에서 종종 이야기되는 것처럼 단순히 농외소득증대나 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물적 기반 정비사업의 단순한 부문적 개편이나 한두 가지 새로운 농촌개발사업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박경, 2003).

박경(2003)은 한국내의 WTO 협상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①자유화론자(market liberaliser), ②보호주의자(protector), ③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는 입장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③은 농촌을 생산의 장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보는 입장으로, 이 경우 농업·농촌정책은 단순히 농업을 유지·보전하거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며, 이것은 농정의 이념과 방향이 생산주의적 농업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정책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틀 안에서 생산주의적 농업정책에 집착하던 한국의 농촌이 이 시기에 들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존의 개량적 농촌개발로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농촌계획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윤원근(2003)은 현재의 한국의 농촌계획이 이론과 실제의 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시기에 EU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강조되어 오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책적 지원수단들이 강화되었다.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의 실험으로 지역,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핵심주제로 한 LEADER<sup>7)</sup> I(기간 1991-1993; 추진사업건수 217건)이 시작되었다. 1992년에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여 가격지지정책에서 소득보장정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농촌개발에 대한 예산과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들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2년의 개혁이후로는 환경보호적 농업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다.

공동농업정책이 다원적 농촌발전을 목표로 종합적인 지역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서 정책추진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농촌지역정책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①지역을 범위로 하여 건설, 교통,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sector) 정책들이 지역의 전체적 종합계획 아래 통합되어야 하고, ②농업생산기반 조성, 환경농업, 농촌관광 등 농업농촌정책의 수단간에도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③농촌관련 정책추진기구도 통합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④중앙과 지방 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주민 간의 파트너십과 정책연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European Commission, 2001a).<sup>8)</sup>

따라서 EU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정책의 방향이 대폭 전환되어서, 물리적 하부구조 조성정책보다는 구체적인 기술이전의 촉진과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의 조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강현수, 2003).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농촌개발의 방향은 1996년 아일랜드 코크(Cork)에서 개최된 '농촌개발에 관한 유럽회의'에서의 제안사항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농업과 관련해서 농촌중시, 종합적 접근, 다각화, 지속가능성, 보조원칙(subsidiarity), 정책의 간소화, 프로그래밍, 재정지원, 관리능력과 효율성, 평가와 연구 등이 제안되었다(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1996). 혁신과 협력을 핵심 주제로 한 LEADER II(1994-1999; 약 1,000건)는 개별사업의 통합성 제고를 가져왔고, 이는 Cork Declaration에서도 재확인되었다. 개별사업은 나열적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주제 아래 통합성을 가져야 한다. LEADER 그룹 당 보통 하나의 대주제 아래 4-5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평균 80여 개의

7) LEADER(Liaisons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Economie Rurale)는 1992년 실험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전 유럽 농촌의 반을 포괄하는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EU의 대표적인 상향식, 주민참여, 내생적 프로그램이다(박경, 2003).

8) 영국의 예를 살펴보면 종전의 농어업식량성(Minister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을 환경식량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로 바꾸고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과 관련된 각 부처의 기능(환경, 관광, 복지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 농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1a).

세부실행사업들로 계획되어 있다(박경, 2003).

EU의 지역정책은 1957년 로마조약 이후 형성된 EEC의 유럽사회기금(ESF)과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설립에 연원을 두고 있다. EU의 지역정책 수행을 위한 구조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어업지도기금(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FIG), 결속기금(Cohesion Fund), 유럽투자은행을 통한 재정지원의 6개의 주요 재정수단이 있다(강현수 등, 2003). 1999년의 Agenda 2000에서는 농촌정책을 EU의 공동농업정책의 두번째 기둥(second pillar)으로 부각시키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상향식, 종합적 농촌정책(integrated rural policy)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공동농업정책은 Agenda 2000 이후 '농업의 발전'에서 '농림업의 다양화와 발전,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환경 및 농촌유산의 보전'으로 중점 분야가 바뀌었으며, 이를 위하여 ①농업경영에 대한 자본적 투자, ②인적자원, ③조건불리지역,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보상지원, ④환경농업지원, ⑤농산물 가공과 마케팅, ⑥삼림보호 육성, ⑦농촌지역의 일반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제33조 수단들)을 도입·강화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1999). 특히 이중에 제 33조 수단들은 토지개량, 농촌 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촌관광·수공업지원 등 신 소득원 개발, 촌락의 개량과 유산보존 등 농촌의 다양성 증대에 관련된 사업들로서 공동농업정책 중에서도 다원적 농촌발전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각국에서는 Agenda 2000 이후 환경, 관광, 경관 유지, 농촌마을 재생, 수공업과 토산품 개발 등의 다양한 농촌발전을 지원하는 데 이 제33조 수단들을 적극활용하고 있다(Lowe 등, 2002) 이는 Agenda 2000이 공동농업정책안에 농촌개발정책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Agenda 2000의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의 지원유형과 적용기준을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Objective 1은 낙후지역에 대하여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Objective 2는 구조전환지역에 대하여 구조적 문제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전환을 지원한다. Fisheries and rural development는 농촌개발 및 어촌지역의 구조적응을 지원한다.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은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양화에 사용된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은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목표대상지역 1(objective 1)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주로 농업경영체(농장)를 현대화하고 다각화하는 사업들과, LEADER에 사용된다.

표 5. EU 구조기금의 지원유형과 적용기준

지원대상지역	적용기준 및 기금형태
Objective 1	적용기준: 1인당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EU의 평균의 75% 이하인 NUTS) II 지역 기금형태: ERDF, ESF, EAGGF, Guidance Section, FIG
Objective 2	적용기준: 낮은 인구밀도 및 농업부문의 노동력 비중이 높은 지역, 실업률이나 인구유출경향이 높은 지역 기금형태: ERDF, ESF
Objective 3	
Fisheries and rural development	농촌개발: objective 1: 일부 시책을 제외하고 EAGGF Guarantee Section에 의해 재정지원 objective 1 이외: 모든 시책들은 EAGGF Guarantee Section에 의해 재정지원
Community initiatives(CIs)	LEADER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및 통합프로그램을 통한 농촌개발시책(EAGGF Guidance Section)

\* 주: 표에는 각 항목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있는 사항만 언급하였음. European Commission, 2001a : 9-17을 참고하여 작성

Agenda 2000에서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의 농촌개발 자금을 1990년 중반 4.1%에서 2006년까지는 10.5%로 확대하고, 동시에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의 보증부문에서도 농촌개발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European Commission, 2001b), 농업지원에 치중하였던 공동농업정책이 본격적으로 농촌개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되었다(박경, 2003). 실험적(pilot) 전략과 주제의 통합(unifying theme)을 핵심 주제로 한 LEADER +(2000-2006; 약 1,000건 이상)은 지역에 기초한 접근의 강화를 통한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Agenda 2000 개혁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농촌개발지침으로 농촌개발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 1257/99)을 새롭게 제정하였는데, 농촌개발규정(RDR)에서는 각국가별로 적당한 지역을 범위로 설정하여 농촌개발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Bowler(1996: Ch. 7)는 최근에는 국가개입도 농업정책 보다는 지역농촌개발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촌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의 질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촌개발과 EU의 농촌개발을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한국의 농촌개발은 그 성격에 따라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EU의 농촌개발도 가입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되어온 공동농업정책을 기준



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한국의 농촌개발과 EU의 농촌개발의 시기는 거의 일치할 뿐더러, 농촌상황도 유사하다. 한국과 EU 모두 제1기에는 식량자급이 중요한 목표였다. 제2기인 1970년대에 들어 한국은 쌀 자급을 EU는 식량 자급을 달성하였으나, 모두 지역격차문제가 대두되었다. 제3기인 1980년대에 들어 한국에서는 성장거점전략에서 탈피하여 종합적 농촌개발론, 농촌중심권 개발론이 제기되는 등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농촌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EU에서도 지역격차에 대한 정책적 지지는 미흡했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농촌에 새로운 관심이 부여되었다. 제4기에 이르러 EU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책적 지원수단이 강화되면서, 종합적 농촌개발과 지속가능한 농촌개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문민정부'가 1993년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줄속으로 시행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농촌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는 보호무역의 틀 안에서 농업확장주의에 집착하던 한국의 농촌이 제4기에 들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존의 개량적 농촌개발로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농촌계획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한국이 주목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EU에서 198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크게 강화된 기능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농촌개발과 EU의 농촌개발은 그 역사와 문화의 차이가 크다. 특히 EU의 농촌개발은 구조기금정책과 통합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정책수단과 추진체제도 매우 복잡하고, 국가별로 운영실태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EU의 구조기금의 개혁과정에서 추구해온 정책추진체계의 통합적 운영노력, 각국가별 발전격차 뿐만 아니라 각 국가 내부의 지역간 발전격차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점, 농촌개발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 1257/99)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촌개발계획 수립의 강제화, 종합적 농촌개발의 지향, 정치적 판단의 배제 노력, 농업확장주의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로의 이동 등은 한국의 농촌개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 한국의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계획은 그동안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에 치중하여 왔다. 근래 농업이 쇠퇴하면서 생산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가치는 감소한 반면,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기능, 환경보전 기능, 농촌활력유지 기능, 식량안보 기능, 야생동물 서식지제공 기능 등 농촌의 새로운 다원적 기능이 주목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물리적 계획을 넘어서는 사회적 계획(social planning)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농촌계획의 수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촌개발에 있어 계획수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이 우선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개별사업중심의 비계획적인 개발에서 종합화된 농촌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물리적 계획을 넘어, 경제적 계획, 사회적 계획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이것이 농촌계획을 통하여 농촌개발에 반영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강현수, 2003, 최근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흐름, 유럽지역연구회 엮음,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한울아카데미 : 44-58
2. 강현수 외 2인, 2003,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개관, 유럽지역연구회 엮음,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한울아카데미 : 15-43
3. 김병택, 2002, 한국의 농업정책: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한울아카데미
4. 동아일보, 2003년 1월 21일자
5. 동아일보, 2004년 2월 17일자
6. 박경, 2003, 유럽의 농촌지역정책과 LEADER 프로그램, 유럽지역연구회 엮음,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한울아카데미 : 87-118
7. 박서호, 2004, 농촌계획,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국토·지역계획론 (전정판), 보성각 : 199-222
8. 박진도, 2002, 국민의 정부 농정의 성과와 한계, 국민의 정부 농정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농정과제, 수단법인 농정연구센터
9. 사공 용, 2002, WTO 체제하에서 농업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10. 오세익 외 2인,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농림부
11. 윤원근, 1999, 한국농촌계획론, 대학출판사
12. 윤원근, 2003, 국토정책과 농촌계획: 일본과 한국의 농촌계획제도의 비교, 보성각
13. 이성우 외 2인, 2003, 농촌개발을 위한 역동적 지역사회개발모형 연구, 농촌사회 13(1) : 7-49
14. 임형백, 2002, 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활성화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9(2) : 233-245
15. 정창영, 2000, 경제발전론 (제2판), 법문사
16. 최민호, 1998, 농촌지도론: 농촌사회교육적 접근 (전

- 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17. 최상철, 2004, 국토 및 지역계획의 개념과 성격, 대 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국토·지역계획론 (전 정판), 보성각 : 27-40
  18. 최양부, 1987, 농촌지역종합개발과 농촌지역계획, 농촌지역계획수립과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최양부, 이정환, 1987,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 최양부, 정기환, 1984, 마을종합개발의 계획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Bowler, I., 1996, Agricultural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1996, The Cork Declaration: A Living Countryside
  23.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1997, CAP 2000: Rural Development, Brussels: DG VI
  24. European Commission, 1999, CAP Reform: Rural Development.
  25. European Commission, 2001a, Structural Actions 2000-2006: Community and Regulations, Luxemburg
  26. European Commission, 2001b, Spatial Impacts of Community Policies and Costs of Non-Coordination
  27. Hirschman, A.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8. Long, N., 1977,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ural Development, UK: Methuen & Co. Ltd
  29. Lowe P. H., N. Buller, and N. Ward, 2002, Setting the next agenda? British and French Approaches to the Second Pillar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Journal of Rural Studies 18(1) : 1-17
  30. Myrdal, G.,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DuckWorth
  31. Richardson, H. W., 1976, Growth Pole Siillovers: The Dynamics of Backwash and Spread, Regional Studies 10 : 1-9
  32. Rogers, E. M., 1962, Diffusion of Innov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33. Todaro, M. P., 2000, Economic Development (7th ed.), New York: Addison-Wesley